AC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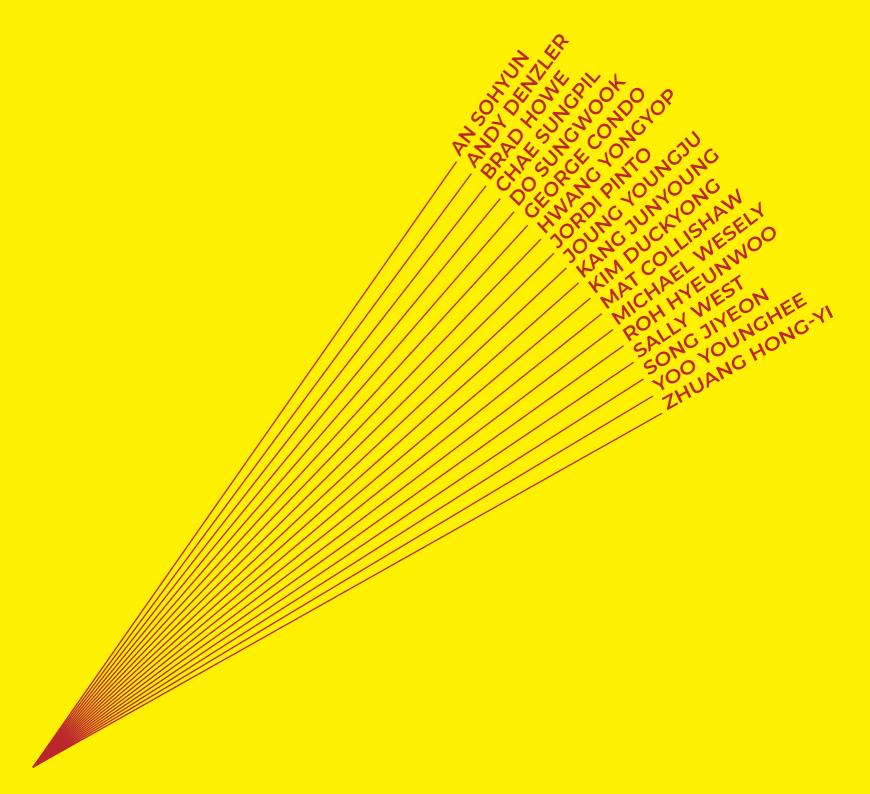
KAIROS TIME

호반문화재단 소장품 특별전 2022. 7.8 - 8.14



ART SPACE HOHWA

+82 2 6337 7300 INFO@ASHH.KR ARTSPACEHOHWA.COM (04520) KOREA PRESS CENTER, 124, SEJONG-DAERO,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EURCHOOK CEORCE COMO HWANCYONCYOP JOUNG YOUNGIL Will Link OUNC JORDI PINTO WIM DUCKYONG MAT. . . LISHAW MICHAELWESELY ROHLIVEJELY SALLYWEST YOO YOUNGHEE ZHUANG HONG-YI 아트스페이스 호화는 7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 번째 소장품전 《Act 2. Kairos Time》을 개최한다. 본 전시는 호반문화재단의 다양한 컬렉션을 선보이는 전시로, 자연과 도시, 인간과 동물등 실존하는 대상 및 풍경을 탈백락화하고 재백락화한 화화, 조각,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전시에서는 Andy Denzler, Brad Howe, George Condo, Jordi Pinto, Mat Collishaw, Michael Wesely, Sally West, Zhuang Hong-Yi, 강준영, 김덕용, 노현우, 도성욱, 송지연, 안소현, 유영희, 정영주, 채성필, 황용엽등총 18인의 작품 20점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200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 회화와 조각들이 주로 소개되며, '자연 이미지'를 창조적으로 변주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한다. 채성필의 〈원시향〉은 훍물을 직접 캔버스 위에 사용해 지구 생명의 근원적 에너지를 추상표현주의로 소회해내며, 브래드 하우(Brad Howe)의 〈Viata〉는 자연에서 받은 영감을 얇은 와이어와 알루미늄 컬러칩이 결합된 조각으로 치환해냈다. 자연 이미지가 도시 속 물질과 함께 배치돼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작품도 있다. 맷 콜리셔(Mat Collishaw)는 그래피티 작업이 된 콘크리트 위에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새를 사실적으로 재현한 〈Gasconade〉를 통해 우리 시대의 물질성을 풍자한다.

또한, 미술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이미지인 '인간'을 표현한 작품들도 선보여진다. 고전 초상화 양식을 빌려 자기만의 독특한 언어로 재해석하는 작가인 조지 콘도(George Condo)는 <French Maid with Red Hair>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인간의 내면을 담기 위해 다각도로 바라본, 분할된 인물의 모습을 조합했고, 한국 현대 미술사의 거장인 황용엽은 <인간이라는 작품을 통해 전쟁으로 인해 개인이 입은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위태롭지만 선명한 라인으로 그려낸 사람 형상과 함께 복잡한 색으로 배경을 표현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간을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 해석했다. 하나는 '크로노스' (Kronos)로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진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시간 그 자체다. 또다른 하나는 '카이로스'(Kairos)로 저마다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심리적 시간, 또는 비선형적 시간을 뜻한다. 정확히 말하면, 선형(linar)의 시간대에서의 어느 한 때'를 의미한다. 이는 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질적 시간으로서 연대기적 시간에 작은 구멍을 만들고 존재의 새로운 면모를 마주하게 하는 귀한 챌니라고도 할 수 있겠다.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닌 나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순간인 것이다.

이번 전시의 기획 의도는 카이로스적 시간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한다.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예술가들은 존재의 이면을 드러내기 위해 특정 대상을 기존의 형태나 고정관념으로부터 끄집어낸 후 저마다의 미적 해석을 거쳐 또 다른 이미지로 재탄생시키곤했다. 그 과정은 고전적 시간(크로노스)을 해체하고 새롭게 의미 부여된 카이로스적 시간으로 재구성하는 행위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 작품 감상을 통해 작가의 '시간 재구성' 과정을 지켜보는 수용자들 또한 저마다의 인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카이로스적 시간을 영위하고 있는 셈이다. 아트스페이스 호화의 소장품전 《Act. 2 Kairos Time》은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의 실존 대상에 대한 탈구축화를 주목하고자 하며, 작품에 내재한 고유한 미의식의 집적을 통해 관람객의 선형적 시간에 교열을 내고자 한다. ARTSPACE HOHWA will host its second collection exhibition, 《Act 2. Kairos Time》, from July 8 to August 14. This exhibition presents various collections of the Hoban Cultural Foundation, and consists of paintings, sculptures and photographs that decontextualize and contextualize existing objects and landscapes such as nature, cities, humans and animals. In this exhibition, you can see 20 works by a total of 18 people, including Andy Denzler, Brad Howe, George Condo, Jordi Pinto, Mat Collishaw, Michael Wesely, Sally West, Zhuang Hong-Yi, Kang Junyoung, Kim Duckyong, Roh Hyeunwoo, Do Sungwook, Song Jiyeon, An Sohyun, Yoo Younghee, Joung Youngiu, Chae Sungpil, Hwang Yongyop, etc.

The exhibition mainly introduces postmodernist paintings and sculptures of after the 2000s, focusing on works that creatively transform "natural images." Chae Sung Pil's "Wonsihyang" uses soil and water directly on the canvas to express the fundamental energy of Earth's life into abstract expressionism, and Brad Howe's "Viata," inspired by nature, replaces with a sculpture that combines thin wires and aluminum color chips. There are also works in which natural images are placed with materials in the city, causing conflicts with each other. Mat Collishaw satirizes the materials of our time through "Castanades," a realistic reproduction of common birds in the countryside on graffitied concrete.

In addition, works expressing "human", the longest used image in art history, are also presented. George Condo, an artist who borrows a classical portrait style and reinterprets it in his own unique language, combined the divided figures from various angles to capture the ever-changing human side in the "French Maid with Red Hair," and Hwang Yongyop, a master of Korean modern art history, expressed the background in complex colors with images of people with precarious but clear lines, showing the process of overcoming a man's trauma caused by the war through his work "Human."

The ancient Greeks interpreted time in two different perspectives. One is 'Kronos', which is an objective and physical time given equally to everyone. Another is 'Kairos', which refers to subjective and psychological time, or non-linear time, which is recognized by each person. To be precise, it means one 'point of view' in the time zone of linear. This is a qualitative time that occurs within us, and it is also a precious moment when we make a small hole in chronological time and face a new aspect of existence. It is a special moment that applies only to me, not to everyone.

The planning intention of this exhibition is based on the consideration of 'Kairos Time''. Since the mid-20th century, artists used to pull out certain objects from existing forms or stereotypes to reveal the other side of their existence and then recreate them into another image through their own aesthetic interpretation. The process can also be interpreted as an act of dismantling classical time (Kronos) and reconstructing it into a newly meaningful Kairos Time. In addition, prisoners who watch the process of "reorganization of time" by artists through appreciation of their works are also running Kairos Time based on their own perceptions and experiences. The exhibition of ARTSPACE HOHWA's collection exhibition, 《Act. 2 Kairos Time》, aims to pay attention to the decentralization of the real object of postmodern art, and to crack visitors' linear time through the integration of the unique aesthetic consciousness inherent in the work.

An Soh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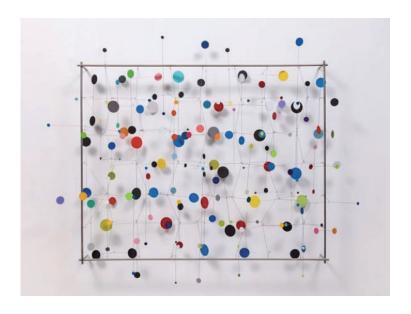
안온 2019, oil on canvas, 130.3×162.2cm

Andy Denzler



Under the Roof 2019, oil on canvas, 120×140cm

Brad Howe



Viata2017, stainless steel, aluminum, urethane, 152.4×198×30.5cm

Chae Sungpil



원시향 2019, pigment naturel sur toile, 200×160cm

안소형 (b.1984)

안소현은 현실에 존재하는 소재 및 풍경을 화폭에 가지고 오며 이를 작가적 상상력을 가미해 사실적인 허구의 풍경화로 대체한다. 이러한 그의 화면은 따스한 빛으로 인해 넓은 공간감과 편안함을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통창을 통해 하지의 온화한 햇빛을 그대로 받아내는 마루 위 작은 의자와 선인장은 긴 그림자를 만들며, 캔버스 너머의 저 곳은 매우 안녕할 것이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작가는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본인의 세상과 시간이기에, 온전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한다. 그리고 그림이 그 손을 떠났을 때, 본인이 느꼈건 몰입의 평화와 안온함을 타자에게 전달하며 비로소 작품이 완성된다고 전한다. 작가는 어떤 것에도 애달거나 집착하지 않는 깃털같은 무위의 삶을 추구하며 표현한다. 안소현이 구현한 비현실적인 현실은 어딘가에 소속되어 무언가를 늘 열망하며 살아가는 동시대의 우리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Andy Denzler (b.1965)

스위스의 대표적 아티스트인 앤디 댄즐러는 인물을 유채로 사실적으로 표현하되 모션 페인팅(motion painting)이라는 새로운 회화 장르를 도입해 피사체를 재해석한다. 사진이나 뉴미디어에서 얻은 인물 이미지를 페인팅 나이프를 이용해 빠른 움직임으로 캔버스 위에 재현하는 것이다. 도구(나이프)로 인해 발생한 표면을 가로지르는 넓직한 가로축들은 움직이는 피사체의 잔상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다. 또는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정지시켰을 때 나타나는 노이즈가 낀 화면처럼 보이기도 한다. 댄즐러의 화폭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이러한 회화적 기법때문에 개개인의 특징이 지워진 채 익명성이 강조되며, 구상회화지만 추상성을 동시에 취하게 된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 있는 미지의 존재를 소환하는 듯하다. 드러나듯 사라지는 앤디 댄즐러의 회화는 특유의 회화적 제스쳐를 드러내며 보는 이에게 신비로운 미적 체험을 경험케 할 것이다.

Brad Howe (b.1959)

브래드 하우는 자연에서 받은 영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주로 얇은 스테인리스의 선형적 미감과 색색의 알루미늄 컬러칩이 돋보이는 기하학의 조각을 제작한다. 금속 물질이 주는 차가움, 예리함과 대조되는 경쾌한 색상의 도형 군상들은 가녀린 와이어에 연결되어 전면에서 화려하게 흔들린다. 그의 작품은 입체성 때문에 분명 조각으로 구별되지만, 패턴처럼 흩뿌려진 듯한 작은 원형들은 추상회화를 떠오르게 만든다. 특히, 본 전시에서 선보이는 <Viata>는 벽에서 30cm 정도 띄워서 설치하는 작품으로서, 핀조명을 받았을 때 벽에 생기는 조형적 그림자 또한 조각과 함께 어우러지며 시각적 감동을 극대화한다. 그의 작품은 견고한 구조와 우아한 형태, 그리고 탁월한 색 조합을 통해 조각과 회화의 매체가 표현할 수 있는 미적 쾌락을 선사하며 보는 이의 시야와 정신을 일순간 사로잡는다.

채성필 (b.1972)

'흙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명명되는 채성필은 프랑스에서 활동하며, 흙물을 주재료로 사용해 땅과 물 등의 대자연을 추상표현주의적으로 완성한다. 흙은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재료로서 미술사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물질이다. 원시시대 벽화에서부터 고대 문명의 도기들까지, 흙은 그 재료가 갖는 영속성으로 인해 먼 과거 예술 창작의 베이스로 자주 사용되었다. 채성필은 이러한 질료적 성질에 매료되었고, 작품에 재료로서 흙을 적극 활용한다. 그러나 과거의 유산들이 흙을 '바탕재'로 사용한 것에 반해, 작가는 흙을 그림을 그리는 '도구'로서 선택한다. 안료를 물들인 파란색의 흙물 혹은 토양 그 자체인 흙물을 화면 위에 흘리거나 흩뿌려서 지구 생명의 원천인 물과 대지라는 거대한 두 축을 강렬하게 표출한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흙물이 폭포처럼 수직 낙하하는 듯한 추상회화 <원시향>은 존재의 근원에 대해 고요히 사색하도록 만든다.

Do Sungwook



Condition-Light 2012, oil on canvas, 80×20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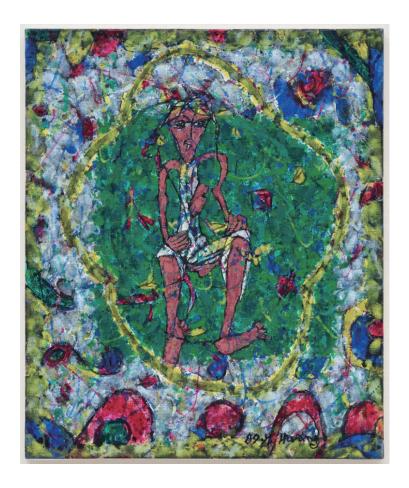
George Condo



French Maid with Red Hair

2005, oil on canvas in artist's chosen frame, 43.8×38.4cm

Hwang Yongyop



인간 1989, oil on canvas, 45.5×37.9cm

Jordi Pinto



Petit déjeuner 2019, acrylic on canvas, 65×130cm

도성욱 (b. 1971)

도성욱은 빛이 은은하게 들어찬 신비로운 숲의 모습을 리얼하게 표현한다. 전면이 아닌, 나무와 풀 뒤편으로 들어오는 빛의 무리는 근경의 자연물들은 선명하고 짙게 만들며 원경에 있는 나뭇가지들은 저 멀리 조용히 사라지게 한다. 작품 앞에 서 있는 관객에게 화면 안으로 금방이라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극사실적으로 묘사한 도성욱의 자연 회화는 실존하는 풍경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작가 내면에 존재하는 이상적 풍경을 손이 가는 데로 붓질을 한 결과물이다. 마음 가는 색을 캔버스 위에 올리고, 그리는 과정에서 다시금 즉흥적으로 떠오른 자연물들을 등장시킨다. 그리고 마지막에 빛을 표현한다. 인위적인 연출을 따르지 않은 채 무의식에 의해 채색한 그의 풍경은 실재와 허구가 혼재하는 독특한 장소로서 존재하게 된다. 작가의 놀라운 회화적 기교를 통해 완성된 초록과 빛의 향연은 보는 이를 존재하지 않는 그 장소에 위치시키며,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도록 한다.

George Condo (b.1957)

미국의 대표적인 아티스트인 조지 콘도는 근대 미술사의 표상인 초상화를 인공사실주의(Artificial Realism)의 시선으로 재해석해 무의식 속 존재를 소환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인공사실주의란 실제 눈에 보이는 대상을 물리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닌, 심리적 또는 철학적으로 해석하여 다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화파를 일컫는다. 작가는 이러한 미술적 태도와 기법을 통해 대상의 이면 또는 본질을 그리고자 하였다. 또한 조지 콘도는 대상의 외피 너머 심연을 탐구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초상화를 주된 소재로 선택한다. 시간과 감정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인간의 복합적인 내면을 담아 내기 위해 다각도에서 바라본 인물을 관찰하였고, 그 분할된 면면을 재구성하여 큐비즘의 동시대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황용엽 (b.1931)

한국현대미술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황용엽은 격동의한국현대사에서 투철한 예술정신을 잃지 않고, '인간'을 소재로 독자적인 형상 회화를 구축하였다. 6.25 전쟁을 몸소 겪은 황용엽에게 인간이란 타인을 해하는 집단의악마성과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무력한 개인의 나약함을동시에 내포한 역설적인 존재였다. 전쟁으로 인해인간성의 상실을 목도하게 된 작가는 작업의 초창기엔검붉은색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회화의 표면 또한 거칠게 뜯겨지듯 표현하여 인간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나타냈다.이후에는 인간에 대한 시선이 애정 어리게 바뀌며,대자연을 배경으로 한 구도자 같은 인간의 모습을 그리게되다. 본 전시에서 볼 수 있는 1989년 작품 <인간〉은시대적 비극을 관통한 개인이 트라우마를 치유하고스로 회복해온 그 지난한 과정을 위태롭지만 선명한라인으로 그린 사람 형상과 복잡한 색깔로 표현한 듯하다.

Jordi Pinto (b.1968)

바르셀로나에서 활동하는 조르디 핀토는 일상 속 보통의 풍경에 작가적 상상을 가미해 정직하고 정확한 붓질과 경쾌한 색감이 돋보이는 유토피아적 평면 회화를 그려오고 있다. 작가의 화면에는 주로 그의 가족과 연인이 등장하며, 이들 주변에는 삶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일상적 사물과 풍경이 둘러싸고 있다. 하지만 인물들의 이목구비를 생략하고 사물의 형태를 단순히 하며 선 원근법을 무시함으로써, 현실과 동떨어진 낯설고 기묘한 풍경으로 자리한다. 구조주의와 입체파에 영향을 받은 작가는 이렇듯 현실에서 작업의 모티브를 가져오지만. 사실적으로 이미지의 환영을 극대화하는 전통적 방법론들은 누락한 채 일상을 재구성한다. 따라서 그의 회화는 혼돈과 질서가 공존하는 판타지적 세계로 읽히게 된다. 조르디 핀토는 일상적 소재와 따뜻한 색채, 독자적인 투시도법을 더한 화면을 통해 보는 이에게 상상의 세계를 여행하는 듯한 유쾌한 감각을 선사한다.

Joung Youngju



Hillside Village 128 2018, paper on canvas, acrylic, 80.3×112cm



Hillside village 629 2020, paper on canvas, acrylic, 150×150cm

Kang Junyoung



And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祥瑞 2019, oil on canvas, 161×131cm

Kim Duckyong



결-귀소 2018, mother of pearl on wood, 122.5×200cm

Mat Collishaw



2017, oil on canvas, concrete, jesmonite, 40.6×30.5×5cm

정영주 (b.1952)

정영주는 캔버스 위에 한지를 입체적으로 붙여 판자촌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작가가 표현한 판자촌은 실제 존재하는 달동네가 아닌, 작가가 꿈꾸는 일종의 유토피아적 화면이다. 해질녘인지 여명인지 알 수 없는 어슴푸레한 때, 어둠을 밝히는 집집마다의 작은 불들은 원경으로 갈수록 끝없이 많은 밝은 점들로 대체되며 아스라히 멀어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영주의 판자촌을 보면, 삶의 부침이 떠오르기 보다는 저 무수한 집들의 희망과 사랑이 연상된다. 이러한 감상은 판자집을 바라보는 작가의 애정 어린 주관적 해석에 기인한다. 정영주는 지난했던 젊은 날을 지내오던 중, 남산에서 바라본 빌딩 사이에 뜨문뜨문 있는 판자집에서 당시 세상으로부터 외면 받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후 지금까지 정겹고 온화한 분위기 판자촌 풍경을 묘사해오고 있다. 그의 유토피아적 판자촌은 커다란 시대의 흐름에 가려져 있지만, 빛나는 본연의 가치를 잊지 말자고 목소리 내는 듯하다.

강준영 (b.1979)

강준영은 유년 시절의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감정과 이야기들을 진한 물질성과 강렬한 색채를 사용해 도자와 회화 등의 매체로 아카이빙하는 현대미술가다. 도예를 전공한 그는 흙의 질감을 타 장르에 적극 활용한다. 특히 작가는 손가락에 물감을 묻혀 그림을 그리곤 하는데, 이 과정과 결과물이 도예 매체와 유사하다. 손을 직접 사용하여 물감을 되직하게 올리기에 특정 부분들이 앞으로 돌출하게 되며, 이것이 화면의 촉각성을 끌어올린다. 강준영의 작품에는 사랑과 존중을 담은 글귀들이 또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아이가 낙서하듯, 거칠게 쓴 문구들은 판적인 이미지들과 절묘하게 어우려져 시각적 완성도를 높인다. 선명한 오렌지톤 바탕색과 손가락 끝으로 그린 몽근한 화훼 도상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에게 바치는 문구인 듯한 "I adore vou!"가 어우러진 <And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祥瑞>은 작가의 세련된 미적 감각과 서정적인 감수성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김덕용 (b.1961)

김덕용은 오래된 가구나 나무문의 판을 깎는 등 고목을 다듬어 그 위에 자개, 단청재료, 안료를 사용해 채색한다. 그가 취하는 재료들은 모두 한국 전통 예술에 사용되는 재료인데, 이는 한국적인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겠다는 작가의 포부와 결을 같이 한다. 특히, 광채가 나는 자개 조각을 수 없이 이어 붙여 은은하게 반짝이는 그의 화면은 손의 노동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공예적 미감을 함께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소장품, <결-귀소>는 깊고 푸른 바다와 하늘이 만나 생긴 지평선을 가늘고 긴 자개껍질들의 무수한 집합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강렬한 색감과 혁신적인 매체 실험 등으로 단번에 보는 이의 눈을 사로잡는 작품은 아니지만, 자개 특유의 은은한 광채와 아스라히 멀어지는 평화로운 수평선으로 말미암아 지친 우리 삶에 잠시나마 평안을 선사한다.

Mat Collishaw (b.1966)

영국의 현대미술 작가 맷 콜리셔는 주로 자연과 신화에서 영감 받은 것들을 채집하고 재결합하여 회화 혹은 미디어아트로 치환해, 환상이라는 테마를 가시화한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Gasconades> 연작은 콘크리트 위에 새들의 초상을 그린 작품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실물로 착각하게 만들만큼 리얼하다. 극사실주의적 표현인 트롱프뢰유(trompe l'oei),

즉 눈속임 기법을 페인팅에 활용한 평면회화다. 시골에 있을 것 같은 새들이 작은 그래피티 벽을 뚫고 나와 횃대에 실제로 앉아있는 것만 같다. 맷 콜리셔는 자연 속에 있어야 할 존재들을 도시의 상징적 물화인 그래피티 벽과 함께 배치함으로써 이질적인 충돌을 일으킨다. <Gasconades>에 등장하는 새들은 도시의 번화함과 화려함을 쫓아 탈출한 존재로서 동시대성과 물질주의를 풍자하는 역할을 한다.

Michael Wesely



7.6-19.6.2005 2005, C print mounted on acrylic, 206×186cm



9.5-17.5.2005 2005, C print mounted on acrylic, 206×186cm

Roh Hyeunwoo



Untitled 2018, oil on canvas, 145×227.3cm

Sally West



Flowers From The Corner Shop 2015, oil on canvas, 120×120cm

Song Jiyeon



바라보다-한남 2020, acrylic on linen, 97×193.9cm

Michael Wesely (b.1963)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사진 작가인 마이클 웨슬리는 꽃이 피고 지는 과정을 카메라로 포착하여 생(生)의 무상함을 상징화한다. 그의 사진에서 도드라지는 특징은 비자발적 운동성의 대상이 마치 스스로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생화의 모션을 화면에 고스란히 담아낸 다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빛이 부족한 공간에서 셔터를 장시간 노출하여 움직이는 피사체의 동선이 마치 유령 이미지처럼 보이게 하는 '카메라 쉐이크(camera shake)' 기법을 이용한 것이며, 이를 통해 생화의 개락(開落)을 포착하였다. 꽃의 짧은 생애를 생동감 있게 찍어낸 사진은 죽음이라는 터부를 가시화하며 유한한 우리의 삶을 유비한다. 마이클 웨슬리는 꽃의 물리적 이미지를 보여주되, 화려하게 피어 불온하게 흔들리고 다시금 죽음으로 회귀하는 생의 본질과 허무함을 직관적이면서도 심미적으로 나타낸다.

노현우 (b.1986)

노현우는 경이로운 자연 풍경을 캔버스 위에 사실적으로 그려 인간 내면의 다양한 감정들을 전달하고자 한다. 큰 화폭에 그려낸 위대한 자연 풍경은 관람자를 무아(無我)의 상태로 이끌며 이미지가 선사하는 환영 안으로 빠져들게 한다. 차분한 채도로 울창한 초목을 묵묵히 그려낸 <Untitled>에서는 인내하고 수행하는 이의 고독과 단단함이 느껴진다. 그리고 어두운 숲 속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얇은 빛줄기는 우리로 하여금 초목 너머의 보이지 않는 세계로 기꺼이 넘어가게 만들며, 화가가 구축한 회화적 감수성에 탄복하게 만든다. 이렇듯, 작가의 초록은 보는 이에게 잔잔하지만 묵직한 감정의 고조를 유발하며 화면 너머 자연과의 합일을 이끈다. 노현우는 무위적 풍경화를 통해 감정의 흔적을 기억하고, 생성과 소멸의 순환적 진리를 이야기한다.

Sally West (b.1971)

샐리 웨스트는 호주의 화가로서, 주로 마띠에르(matière)가 살아있는 해변 풍경과 꽃이 있는 정물화를 그린다. 마치 캔버스 위에 생크림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대상을 표현한 화면은 물감을 두텁게 칠해서 최대한 질감의 입체적인 효과를 내는 '임패스토(impasto)'라는 기법으로 완성되었다. 그의 작품은 회화용 나이프인 스패츌러(spatula)로 유화물감을 무심히 얹거나 펴 바른 것이기에, 붓으로 세밀하게 그린 풍경화 혹은 정물화와는 다른 느낌을 준다. 그러나 물감을 가르는 나이프를 때론 조밀하게, 때론 엉성하게 사용함으로써 원근감과 입체감을 화면 안에서 자유롭게 구현해 낸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샐리 웨스트의 작품은 그의 대표적인 연작 중 하나인 꽃이 있는 정물이다. 붉게 만개한 밀도 높은 꽃덩이들과 그와 대조되는 넓은 필치의 화이트 톤 배경은 고전적인 정물화의 현대적 변주와 그 아름다움을 전달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송지연 (b.1981)

송지연은 오래된 도심의 풍경을 두텁고 거친 질감의 회화로 표현한다. 작가는 그가 태어나고 성장해온 도시를 매개체로 하여 본인의 삶과 도시의 유기적 관계를 보여준다. 화면을 빽빽하게 채운 낮은 구옥들의 집합은 도시 풍경임에도 어딘가 편안하고 포근하다. 거칠면서도 따스한 분위기의 오묘한 화면은 그리기와 지우기를 반복한 수많은 붓질과 안료의 축적으로 인한 것이다. 작가는 그리고 지우는 반복 행위를 작가 스스로의 성찰 방법이자 존재의 의미를 물어보는 과정이고 삶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과정이라고 전한다. 즉,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라 할 수도 있겠다. 수많은 붓질과 저채도의 색 중첩으로 구현한 구도심의 풍경은 평범한 우리 삶을 따스하게 포용한다.

Yoo Younghee



Play with drawing acrylic, oil on paper, 94×316cm

Zhuang Hong-Yi



untitled 17-11-041 2017, acrylic, rice paper on canvas, 60×60cm

유영희 (b.1947)

유영희는 화려한 색채와 리드미컬한 드로잉 라인이 돋보이는 화훼 그림에 천착하고 있다. 작가는 대상을 재현하기 위해 회화 매체를 선택한 것이 아닌, '그리기'라는 행위 자체의 즐거움과 평면회화의 본질적 미감을 제시한다. 그의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화면을 분할하는 수직과 수평의 격자 무늬다. 이것은 유영희회화의 기본 구조로서 구상회화의 일률적 전개를 분쇄하여 화면에 변주를 주면서도, 그 간격을 균일하게 하여 일종의 패턴을 정립한다. 한편, 그리드 된 화면 위에는 풀과 꽃 선형이 매우 부드럽게, 때론 강직하게 등장한다. 이 선그림들은 모두 대상을 재현한 것이 아닌, 작가 내면의 심상을 대변하는 추상적 존재로서 작동한다. 유영희의 평면회화는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가 되기 보다는 '그림 그 자체'로 존재하면서, 미술의 원초적 즐거움을 따르고 제시한다.

Zhuang Hong-Yi (b.1962)

네덜란드와 중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주앙홍이는 라이스페이퍼를 소재로 보는 각도에 따라 색채와 형태가 변하는 사각의 부조 조각을 제작한다. 구불대며 요동치는 라이스 페이퍼는 금욕적인 수준의 규율을 따르며, 노동의 집약을 보여준다. 작가는 이러한 표면 위에 다채로운 색의 안료들을 분사 채색하여 추상표현주의적 화면을 구축하며, 동서양의 양가적 미감이 혼용된 회화적 조각을 만든다. 주앙홍이는 광활한 꽃밭을 작업의 모티브로 삼으며, 이를 대담하고 극적인 색상 팔레트와 요동치는듯 고요한 사각의 형태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작가만의 독특한 조형언어로 재해석한다. 주앙홍이의 작품은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자연의 파괴와 천연자원의 고갈 등 환경적문제에서 시작되었다. 작가는 라이스페이퍼를 정교하게 반복하고 채색한 꽃의 만발 통해 자연의 번영과 세계의 평화를 상징화한다. ACT 2

KAIROS TIME

ACT 2. KAIROS TIME.

EXPLORING ART SPACE HOHWA.

8 JULY — 14 AUGUST 2022

주최

호반문화재단, 아트스페이스 호화

디자인

NNGC



